

하게 그들이 즐기고 기록의 가치를 둔 것은 문인이나 은자가 소요하는 한담한 풍경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표현 형식이었다. 이를 명대 회화의 수용 기록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자면, 절파화풍보다는 격렬함이 축소된 절파화풍 내지 절파풍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는 온화한 문인취향의 화원화풍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화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 중기 회화 감상 글의 형식이 지시하는 대로, 조선 중기 문인들은 세속적인 인물을 주제로 거칠고 활달한 표현형식을 발견했던 명대 절파 산수화풍으로부터 탈속적인 문인을 주제로 보다 온건한 단아한 표현 형식을 수용하고 추구했던 것이다.

4. 맺음말

회화관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 혹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자료의 여건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선 중기 회화는 여러 차례의 병난을 거치면서 유작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당시 감상글들은 대부분 비평어 등의 개념을 배제한 山水詩 내지 詠物詩이며, 혹은 개념을 포함하더라도 작품이나 작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런 종류의 글들은 감상의 관점을 직접 노출하지 않는다. 또한 소수 남아 있는 산문 형태의 경우도 표면적으로 동시기 명대의 것과는 주요 비평 개념과 기준이 다를뿐더러 더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인상을 남긴다. 심지어 그 비평의 양상은 조선 초기에 비해서도 소박해 보인다. 이에 조선 중기 회화 연구는 주로 감상자들의 사회 활동을 추적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당시 소박한 감상글은 감상 대상에 대한 주제 정보 외에 그 서술 형식을 통해 감상의 기준과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가치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조선 중기 산수화풍은 한담하고 청신한 성당시풍의 유행과 함께 시작되었고 양 측은 서로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그 강화에 힘썼다. 조선 중기 절파 산수화가 갖춘 근경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아득히 먼 원경의 험준한 산수는, 그 발생부터 언어를 절약하는 함축적인

언어로 閑淡한 작은 풍경 속 탈속적인 서정적 자아를 읊는 성당시풍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나아가 閒雅한 성당시풍을 추구한 시인 외에도 현실에 대한 강개한 비분을 격정적으로 읊는 시인 역시도 조선 중기 산수화에 대해 端雅하고 清新한 기풍 외에 험준하고 강한 기세, 혹은 활달함을 노래한 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 역시 조선 중기 산수화에 대한 감상안의 대체적인 기풍을 알려준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과연 조선 중기 산수화가 얼마만큼 절파적인가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명대 절파 회화는 주제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 중기 풍미한 주제 외에도 명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문인을 포함해 도시인들의 세속적인 풍경을 그렸고, 산수화 역시 세속적인 표정과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대부분 한아하고 탈속적인 문인을 다룬 조선 중기 절파 산수화는 주제상 절파의 한 부분과 일치할 뿐 그 외연이 다르며, 전통적인 산수화 계열의 주제에도 맞닿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두 나라의 절파를 둘러싼 회화관의 차이는 작품의 주제 외 구도나 필묵법 등, 주제에 대한 표현 형식의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조선 중기 문헌 속에서 명·청대 화원화가의 인명은 다수 등장하면서 절파화가 찾는 것 같아볼 수 없고, 오 지역 화가로서는 구영과 문징명에 대한 기록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문헌들은 감상자들이 제 양식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감상안과 비평개념을 성장시키기에 양식의 비교 자체가 힘들었을 상황을 전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명대 절파가 기록 속에 등장하지 않고서 당시에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원화풍의 자취만 뚜렷하다는 점은 절파의 격렬하고 거친 기세가 화원화풍의 세력 속에 약화되었을 많은 경우들을 제시한 준다.

광대사학과와 부분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는 김명국이 당시 문인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문헌상의 흔적들은, 당시 감상의 기준이 강하거나 활달한 기세를 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조선 중기 문헌 속에 등장하는 표현 형식의 양상은 순간적이고 강하고 활달한 기세를 추구하는 절파의 특징 뿐 아니라 양식 자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회화 표현 형식의 문제에서 양식의 부재는 조선 중기화단의 마지막 대가로

일컬어지는 윤두서의 글까지 지속된다. 제화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 중기 문헌들은 회화의 표현 형식보다는 주제를 주목하고, 절파적인 산수화 풍보다는 문인을 주제로 한 정려되고 단아한 화풍을 주목하고 추구했던 당시 문인들의 감상 시각, 그 미감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 姜 紹, 『無聲詩史』(續修四庫叢刊本)
蘇 軾, 『東坡全集』(續修四庫全書本)
孫 鑣, 『書畫跋跋』(續修四庫全書本)
孫岳頌 等 編, 『佩文齋書畫譜』(續修四庫全書本)
汪 珂玉, 『珊瑚網』(續修四庫全書本)
王世貞, 『弇州四部稿』(續修四庫全書本)
田汝成, 『西湖遊覽志』(續修四庫全書本)
朱謀聖, 『畫史會要』(續修四庫全書本)
陳 璽, 『御定歷代題畫詩類』(續修四庫全書本)
嚴 嵩, 『御定歷代題畫詩類』(續修四庫全書本)
黃宗羲, 『明文海』(續修四庫全書本)

*

- 金柱臣, 『壽谷集』(한국문집총간 176)
金昌翁, 『三淵集』(한국문집총간 165-167)
白光勳, 『玉峯詩集』(한국문집총간 72)
朴 祥, 『訥齋先生集』(한국문집총간 19)
成海應, 『研經齋全集』(한국문집총간 273-279)
申翊聖, 『樂全堂集』(한국문집총간 93)
李敏求, 『東州集』(한국문집총간 94)
李晔光, 『芝峯類說』(한국문집총간 66)
李 植, 『澤堂集』(한국문집총간 88)
李 瑛, 『先君遺卷』(국립중앙도서관 B2古朝46-가90)
李安訥, 『東岳先生集』(한국문집총간 78)
任叔英, 『疏菴先生集』(한국문집총간 83)

- 崔鳴吉, 『遲川集』(한국문집총간 89)
 許筠, 『惺所覆頤稿』(한국문집총간 74)
 許穆, 『記言』(한국문집총간 98-99)
 黃玟, 『梅泉詩集』(한국문집총간 348)
 黃斥, 『漫浪集』(한국문집총간 103)

2. 연구 저서 및 논문

*

-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2003.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이종목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汪涑, 『明中葉蘇州詩畫關係研究』, 上海文化出版社, 上海, 2007.
 周積寅, 『吳派繪畫研究』, 江蘇美術出版社, 1991.

*

- 김갑기, 「穆陵文苑의 學唐과 詩的變移」, 『한국 사상과 문화』 29권, 2005.
 김중서, 「玉峯白光勳 시의含蓄의性格」, 『한국한문학연구』 35집, 2005.
 박영관, 「옥봉 백광훈의 시에 나타난 교우 관계 연구」, 『古詩歌研究』 16집, 2005.
 박은숙, 「놀이 박상 시의 특질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보』 Vol. 5, 2001.
 박은순, 「朝鮮時代의 樓亭文化와 實景山水畫」, 『美術史學研究』 第250・251號, 2006.
 朴恩和, 「明代 前期의 宮廷繪畫」, 『美術史學研究』 第231號, 2001.
 백윤수, 「절파의 변명: 『증품화록』을 중심으로」, 『미학』 35, 2003.
 安輝濬, 「高麗 및 朝鮮王朝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古文化』 第20輯, 1982.
 유미나, 「朝鮮 中期 吳派畫風의 전래」, 『美術史學研究』 第245號, 2005.
 _____, 「17세기, 인·숙종기의 산수화」, 『강좌미술사』 31호, 2008.
 이종목, 「朝鮮 前期 漢詩의 唐風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제18집, 1995.
 _____, 「조선 전기 한시의 당풍과 송풍」,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3.

- 임채용, 「백광훈의 작품세계」, 『중국어논총』 6, 1993.
- 정혜린, 「공재 윤두서의 문인화관 연구: 남종문인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 실학연구』 13, 2007.
- 조규희,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진준현, 「인조 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 미술사』 Vol. 12, 1999.
- 황정연, 「조선시대 회화수장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홍선표, 「조선 후기 회화 애호 풍조와 감평활동」, 『미술사논단』 5, 1997.
- Ortiz, Valerie Malenfe, The poetic structure of a twelfth-century Chinese pictorial dream journey, *the Art Bulletin*, June, 1999.
- Richard Edward, painting and poetry in the late Song, *Words And Images*, Metropolitan Museum of Art , New York, 1991.
- Yu-Kung, Kao, Chinese Lyric Aesthetics, *Words And Images*,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1991.
- Richard Barnhart, The “Wild And Heterodox School” of Ming Painting, *The Theories of Arts In Chi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Painters of the Great Ming*, The Dallas Museum of Art, 1993.
- 奚修林, 「論明代中前期畫人的價值趨向」, 『湖北社會科學』, 2002, 12.
- 單國強, 「二十世紀對明代“浙派”的研究」, 『書畫研究』, 古宮博物院, 刊2001年, 第3期.

원고 접수일: 2009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09년 11월 16일

게재 확정일: 2009년 12월 1일

ABSTRACT

The Paintings in Mid-*Chosun* and Its Relation to Contemporary Poetry on Records

Herin, Jung

The research on paintings in mid-*Chosun* has crucial troubles in that the painting works remain rare and the writings on them also are mainly poetry just appreciating the landscapes not often mentioning the stuff on canvas even less analytical. However the naive writings point the criteria of appreciation and their ultimate values in those days through their lyric forms.

This paper reveals the landscape style in mid-*Chosun* was influenced by high *Tang* style poetry especially of serene and lyric prevalent in those days in *Chosun* from its start. Poetry of those days encouraged painters to show the similarities between paintings and poetry ; composition of clear and fine near scene with person and vague or blurry distant scene, and its fresh unsecular mood. Even the poets out of the style above, intense or narrative, always depicted the paintings as of serene and lyric. With these characteristics of records on the paintings, it is doubtful on what point or how much the landscape style in mid-*Chosun* is that of *Zhe* school in *Ming* dynasty almost unquestioned until now.

Zhe school paintings dealt the secular literati enjoying lifes in cities as

well as the those in the depths of a mountain, whose faces were also secular in many case. It seems clear that the extents of landscape subject of mid *Chosun* and *Zbe* school are different and the former imported just a part of the latter.

Parallel to the situation on subject of the paintings it is hardly to say that the form of the paintings is that of *Zbe* school. There only remain records written in mid *Chosun* on several names of court painters of *Ming* dynasty nor of *Zbe* neither of *Wu* school. That means the appreciators of *Chosun* were not enough to discriminate the three styles in *Ming* dynasty or *Zbe* school were passed to *Chosun* its rough and secular vigor diminished blending with court painting style. It is not odd why *Kim, Myung-Kuk*, a court painter in mid-*Chosun*, renowned as influenced from *wild and heterodox* school and as famous today, was never praised at least in the records written in mid *Chosun*.

This investigation on records tells that the paintings in mid-*Chosun* were far literary and unworldly than those of *Zbe* school.